

R&D팀

2021년 2월 MICE 산업 동향

2021. 3.

목 차

1. 세계전시산업협회(UFI), 국제 전시산업 지표	3
2. 국내외 가상전시회 사례	6
3. 해외시장 동향	13
4. 국내시장 동향	22

1. 세계전시산업협회(UFI), 국제 전시산업 지표¹⁾

가. UFI, 국제 전시산업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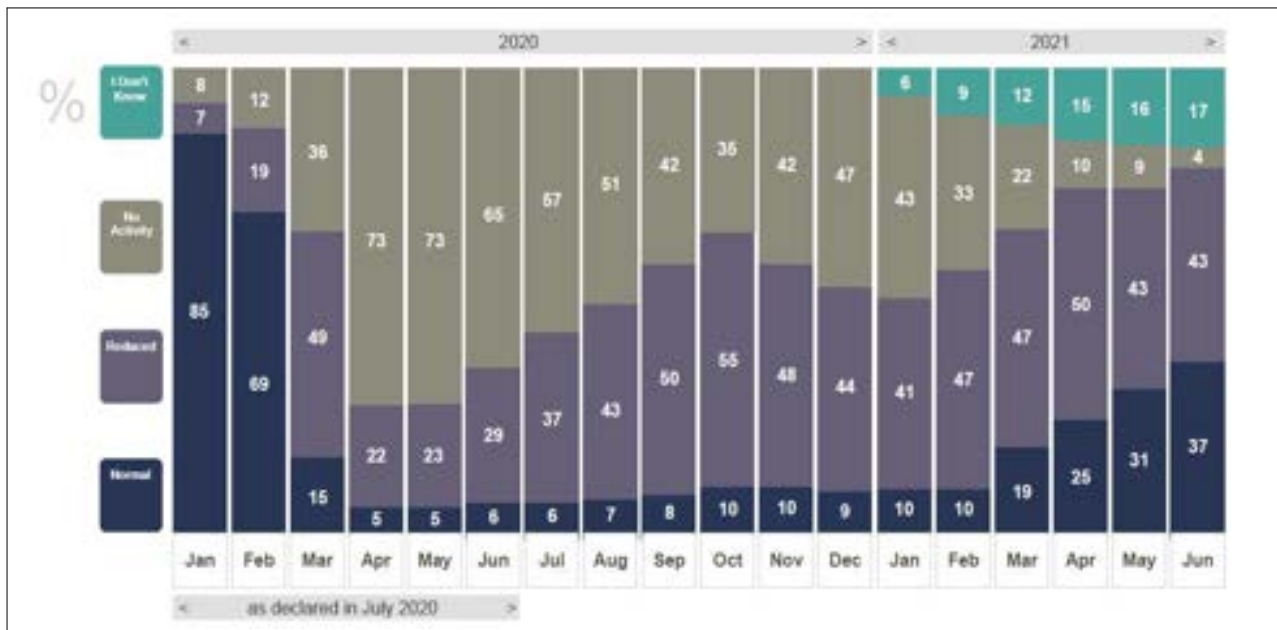
1) 26th UFI 국제 전시산업 지표조사를 통해 국제 전시산업 최신 정보 및 현황 공유

- 세계전시산업협회(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UFI)는 글로벌 전시산업의 현황을 측정하는 ‘국제 전시산업지표(Global Barometer)’ 연구 보고서를 매년 2회 발간해왔으며, 2021년 1월 26th UFI 국제 전시산업 지표(26th UFI Global Exhibition Barometer)를 발간함
- 26th 보고서는 2020년 12월 말레이시아 컨벤션전시회 주최자 협회(Malay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and Suppliers, MACEOS), 프랑스 미팅 위원회(French Meeting Industry Council), 영국 이벤트 주최자 협회(Association of Event Organisers, AEO), 한국전시산업진흥회(Association of Korean Exhibition Industry, AKEI) 등 전 세계의 협회 및 관련 기관 등 총 45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2020년 전시산업 운영 상황 및 2021년 상반기 전망

-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절반 이상의 전시가 개최되지 못 하였으나, 일부 업체가 9월 업무 복귀를 선언한 이래로 2021년 6월 정상적인 수준의 활동을 기대하는 전시업체의 비율이 37%로 나타남
- 대다수 전시업체는 2021년 6월에는 로컬 전시회 또는 국내 전시회가 다시 재개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국제 전시회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1) 1장은 UFI에서 2021년 1월 발간한 26th UFI Global Exhibition Barometer의 국내외 전시산업 현황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그림 1] 2020년 전산업 운영 상황 및 2021년 상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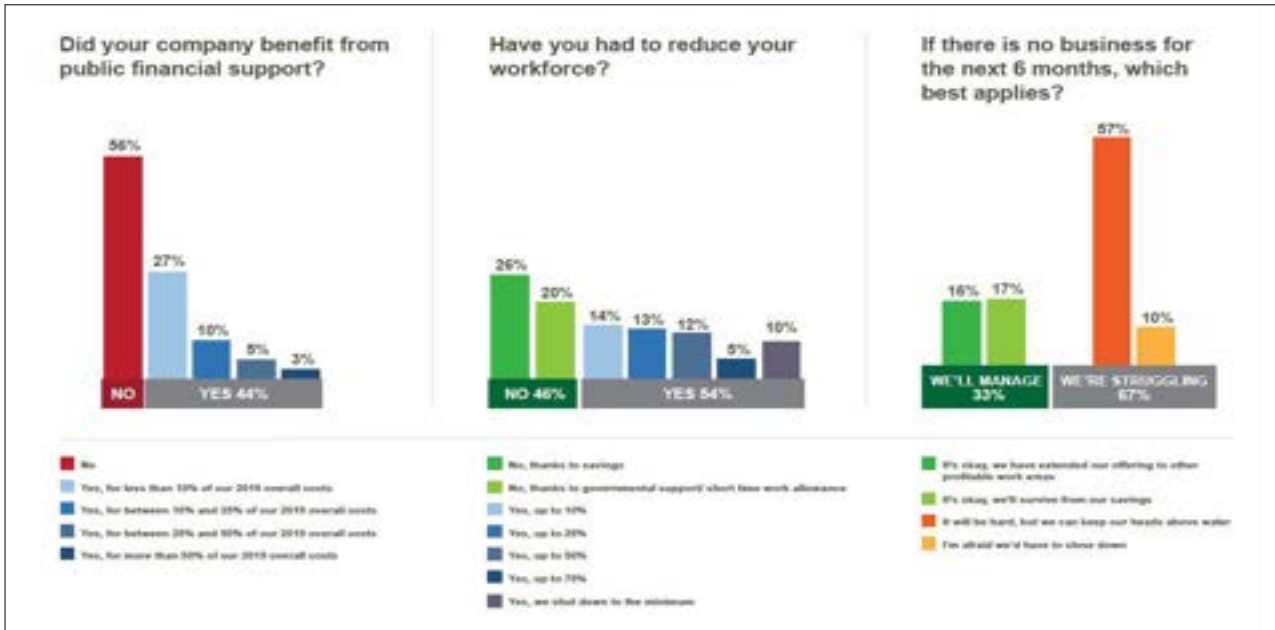
■ 2021년 평균 매출 예상

- 전세계 전산업의 2020년 평균 매출은 2019년 매출의 28%에 불과하며, 2021년 상반기 매출은 2019년 수익의 34%, 2021년 전체 수익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산업의 52%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밝힘
 - 2020년 전체 매출감소의 경우, 중남미는 2019년 매출의 23%, 중동 아프리카는 2019년 매출의 24%로 가장 높은 매출 감소를 보임
 - 아시아태평양(27%), 유럽(32%), 북미(36%)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의 매출감소를 보였음
- 대륙별 적자 비율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47%, 유럽과 북미 50%, 중동 및 아프리카 58%, 중남미 64% 순으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전산업에 미친 영향

- 응답자는 정부 재정지원, 인력 감축, 향후 6개월간 전산업이 없을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함
 - 전체적으로 기업의 44%가 일정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았으나 이들 대다수가 2019년 재정지원 비용의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으며, 56%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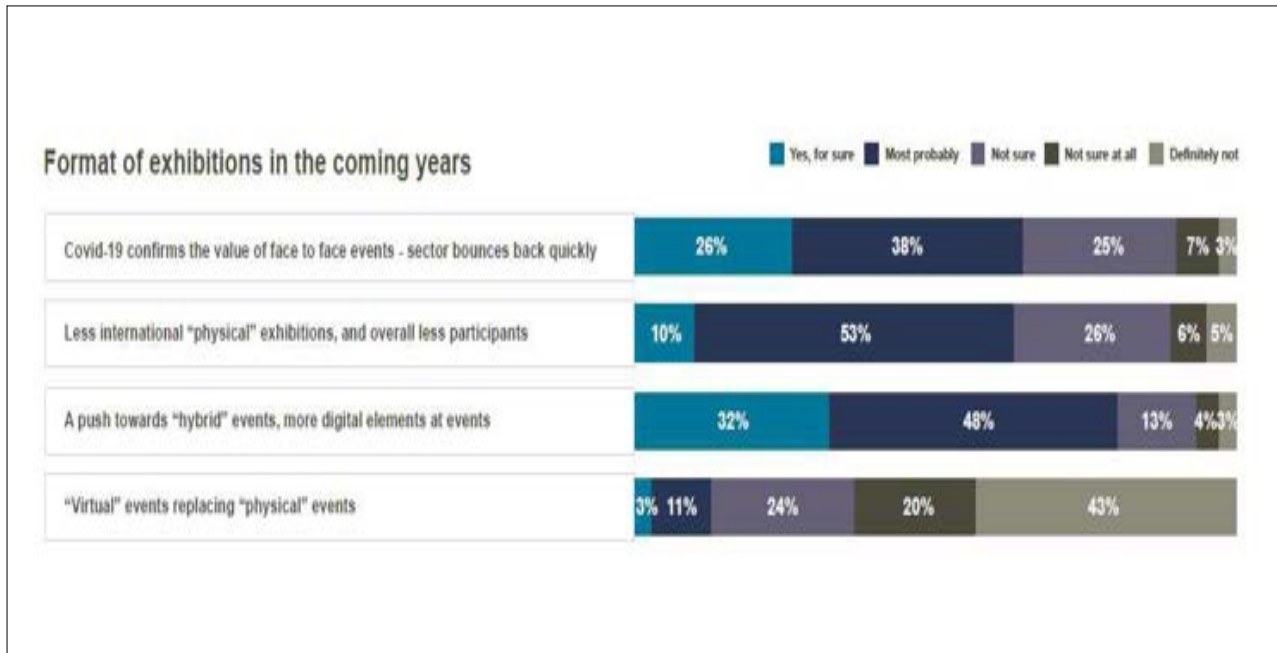
- 인력 감축의 경우, 전 세계의 54%로 절반 이상의 업계가 인력을 감축해야 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전체 종사원 중 25% 이상을 감축해야 했다고 밝힘
- 향후 6개월간 전시 관련 비즈니스가 없다면 10%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57%는 위기상황이나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며, 33%는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그림 2] 코로나19가 전시산업에 미친 영향

■ 뉴노멀시대 전시산업에 대한 전망

- UFI는 뉴노멀시대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6월 대면 행사와 하이브리드 행사 등에 대한 동일한 문항으로 뉴노멀 시대 전시산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 64% (2020년 6월 대비 7% 증가)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의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에는 대면 행사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응답자 63% (2020년 6월 대비 6% 증가)는 국제 전시회 수가 줄어들 것이며, 전체적으로 참가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34%는 아직 확산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80%는 하이브리드 행사,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행사가 증가할 것이라 답함
 - 반면에 가상 행사가 대면 행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한 행사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그림 3] 뉴노멀시대 전시산업에 대한 전망

2. 국내외 가상 전시회 사례

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CES 2021)²⁾

1) 행사 개요

- 올해로 54회를 맞이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1'(Consumer Electronic Show)이 가상 전시회로 2021년 1월 11일~14일까지 개최됨
- 기존 전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던 방식이 아닌 참가기업들의 홍보영상, 제품 정보, 라이브 채팅 및 미팅 위주로 구성됨
- 바이어들은 온라인 쇼케이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심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됨
- 참가기업 규모는 4,500여 개에서 1,900여 개로 절반 이상 감소했으나, Verizon, GM, BMW, Intel, Philips, P&G 등을 포함한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LG 등이 참여함

2) 자료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6904&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searchIndustryCatel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 한국은 총 341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개최국인 미국(566개)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참가국임

<표2-1> CES 2021 온라인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CES 2021
개최 기간	2021. 1. 11.~2021. 1. 14. (4일간)
개최형태	virtual
전시회 주제	IT 및 소비자 전자제품, 핵심 기술 트렌드 등
개최 규모	참가기업 수: 37개국 1,900개사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
공식 홈페이지	http://digital.ces.tech/

2) 행사 주요 내용

- CES의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는 매년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를 예상·전망하는데, 매년 높은 정확성을 자랑함
- CES 개최 첫날 진행된 2021년 핵심 기술 트렌드(CES 2021 Key Trends)에서 올해 핵심 기술로 디지털 헬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봇과 드론, 차량 기술, 5G, 스마트 시티가 선정됨
 -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건강 상태 모니터링, 환자 진단 및 치료와 케어가 가능한 AI 기반 기술, 로봇 간병인 등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디지털 피트니스, 디지털 수업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디지털 전환
 - 로봇&드론(Robotic & Drones): 물류·소매·의료업계에서의 방역 활동, 필요 물자의 안전한 운송과 배달, 필수 소매업계에서의 재고 관리, 그 밖의 밀접 접촉이 필요한 활동을 대체하며, UV 살균 로봇을 이용한 방역 관리 시스템 등
 - 차량 기술(Vehicle Technology): 자율주행차량, 전기차, 전기식 공중 차량 등 차세대 교통수단
 - 5G: 통신 분야 뿐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교육, 쇼핑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
 - 스마트시티(Smart Cities):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접촉자 추적, 도시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비대면 공공시설 등 스마트



[그림 4]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2021 핵심기술 트렌드 발표 화면

나. 우즈베키스탄 혁신기술 전시회 (InnoWeek 2020)³⁾

1) 행사 개요

- InnoWeek 2020 온라인 전시회는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가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3회차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86개국 6,422명이 참여함
 - InnoWeek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제조업, 금융, 공공 행정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최첨단 혁신 기술 도입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함
 - 2018년 1회 행사에는 20개국 5,278명, 2019년 2회차 행사에는 34개국 7,700명이 참가함
-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참가자는 11개국 83개 기업 및 기관이었으며, 이 중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많은 65개, 러시아, 폴란드가 각각 2개, 한국 기업 및 기관으로는 한-우 자동차부품합작사 UzAutoCepla와 여주기술대학교 타슈켄트 분교(Yeju Technical Institute in Tasheknt)가 참가함

3) 자료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86045>

<표2-2> InnoWeek 2020 온라인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InnoWeek 2020
개최 기간	2020. 11. 3. ~ 2020. 11. 8. (6일간)
개최형태	virtual
전시회 주제	미래 혁신기술, 로봇, IT 기술 등
개최 규모 및 성과	방문객 수: 86개국 6,422명, 참가기업 수: 83개사, 참가 성과: 2.3억 달러 규모 투자계약 체결
주최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
공식 홈페이지	https://innoweek.uz

2) 행사 주요 내용

- InnoWeek 2020 참가기업 온라인 3D 전시관은 산업 및 기관 성격에 따라 5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전시되었으며, 참가 부스에는 기업, 제품 및 기술 소개 카탈로그, 동영상, 기업 홈페이지, 담당자의 텔레그램 및 왓츠앱 연락처를 배치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함
- 웨비나와 포럼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우즈베키스탄 AI 사업, 스타트업 현황 등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 짐
 - 포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청년 사업가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성공법, 국제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 및 협업하는 방식 등을 주제로 다룸

다. 한국 2020 내 나라 여행 박람회⁴⁾

1) 행사 개요

-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국내 최대규모의 여행 박람회로 2020년 12월 18일~22일까지 진행됐으며, 125개의 온라인 부스(공공기관 80 부스, 업체 및 단체 45 부스)가 운영되었고, 총 472,505명이 참가함
 - 2021년 6월 또는 9월경 다음 회차인 2021 내 나라 여행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
-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전국의 여행 정보와 상품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행지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전시회임

4) 자료 출처: <http://naenara.or.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UNTELSTE2020>



<표2-3> 2020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개요

전시회명	2020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 기간	2020. 12. 18. ~2020. 12. 22. (5일간)
개최형태	virtual
전시회 주제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여행 문화 제시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행 정보 제공
개최 규모	방문객 수: 472,505명 온라인 부스: 125개(공공기관 80개, 업체 및 단체 45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www.naenara.or.kr

2) 행사 주요 내용

- 2020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의 정상화와 안전 여행 정보 제공 및 수도권 인구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여행박람회는 전시행사 코너로 주제관, 지역관, 상품관, 라이브홍보관 등을 운영했으며,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담고 있음
 - (주제관) 내가 만드는 여행지도: 나만의 여행지를 추천하기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온라인 전시관 전시된 사진을 감상하고, 좋아요와 사진 조회 수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함
 - (상품관) 미리 만나는 여행상품: 원하는 주제별, 지자체와 여행사 추천 여행지와 여행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음
 - (라이브 홍보관): 지자체별 지역 여행지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함



라. 제8회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⁵⁾

1) 행사 개요

-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는 GTI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주축이 되어 자국의 우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북아 대표 글로벌 경제 소통을 위한 대표 행사임
 - 2021년 제9회 GTI 국제 무역·투자 박람회는 ‘평화와 번영, 동북아대표 글로벌 경제·한류 축제’라는 주제로 10월 14일~17일 강원도 원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진행할 예정임
- 2020년 10월 15일~18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1년 내내 진행되는 상시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하여 공식 박람회는 18일 종료되었으나, 제품 전시와 쇼핑몰 및 수출계약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운영함

<표2-4> 제8회 GTI 국제 무역·투자 박람회

전시회명	제8회 GTI 국제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기간	2020. 10. 15.~18.(4일간)
개최형태	virtual
전시회 주제	GTI 회원국이 자국 우수 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을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북아 대표 국제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규모	방문객 수: 3,995만명 참가기업: 296개
주최	강원도, Greater Tumen Initiative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ain.online-gti.com/directory-ko

2) 행사 주요 내용

-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는 총 29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890개 제품을 3D로 전시했으며, 강원테크노파크, 코트라 등 업종별 협회와 전문기관을 통해 선별된 국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온라인 바이어 매칭에 초대돼 비대면 수출 상담이 이루어짐
- 박람회 기간 동안 총 1,728만 명이 방문해 13억 원의 상품 판매가 이뤄졌으며, 수출계약은 2만 5,858불, 국내 MD 구매 계약 33억 원의 실적을 거둠

5) 자료 출처: <https://www.main.online-gti.com/>

- 공식 박람회 폐막 후 2021년 2월 기준으로 온라인 방문객은 총 3,99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온라인 판매 실적은 44억 원으로 집계된 것을 통해 박람회 폐막 이후 온라인을 통한 참가와 판매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5] 제8회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화면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싱가포르: 관광업계 종사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계획 연장 및 확장 계획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계획(Jobs Support Scheme, JSS) 6개월 연장과 지원 범위를 요식업, 소매업, 엔터테인먼트업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총 7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봄
 - 일자리 지원 계획(JSS)은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의 10%-30%에 이르는 보조금을 충당해주는 계획임
 - 2021년 4~6월까지 지급된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9월에, 7~9월까지 지급된 임금의 10%는 12월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임
- 또한, 일자리를 잃었거나 최소 3개월 연속 무급 휴직 상태인 자영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대출 지원 및 보조금 지원도 지속할 계획임
- 싱가포르 컨벤션전시 주최 및 공급자협회(Singapore Association of Convention & Exhibition Organisers & Suppliers, SACEOS)대표인 알로이시우스 알란도(Aloysius Arlando)는 정부의 이번 보조금 확보는 업계 관계자의 생활, 일자리 등 핵심 경제 역량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싱가포르: 비즈니스 회의 목적 방문자 한정, 트레블 버블 허용 계획 발표

- 2월 18일, 싱가포르는 4성급 호텔 및 회의 시설인 커넥트엣창이(Connet@Changi, C@C) 1단계로 비즈니스 회의 목적의 방문자들에 한해 ‘트레블 버블’을 허용할 계획임
- 커넥트엣창이는 4성급 호텔 객실 150개와 최대 2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40개의 미팅룸을 재오픈하여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숙박, 업무 및 회의 환경을 제공함
 - 객실 요금은 식사, 객실 미니바와 룸 어메니티, 와이파이, 공항 픽업 서비스, 체류 기간 동안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포함하여 290달러(한화로 약 32만 원)
 - 또한, 투숙객을 위한 추가 서비스로 면세점 쇼핑, 음식 배달, 개인 맞춤 온라인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커넥트엣창이는 2021년 5월까지 660개의 객실과 170개의 회의장 마련과 올해 말까지 1,300명의 비즈니스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을 목표로 함
 - 금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예정인 ‘세계 경제 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기간 중에 ‘Connect @ Changi’ 시설이 활용될 예정임



[그림 6] 커넥트엣창이(C@C) 미팅룸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 그린노선 도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얻어 양국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그린 노선 계획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 그린 노선은 말레이시아 2020년 관광 활성화 회복 계획의 일부로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주변국과 트레블버블을 체결하여 관광을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임
- 프란시스 테오(Francis Teo) 말레이시아 컨벤션전시 주최·공급자 협회(Malay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and Suppliers, MACEOS) 회장은 공항과 출입국 관리 당국이 입국 시 여행객 전용 특별 노선과 카운터 등을 제공해야 하며, 위생 안전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을 가속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함

■ 태국: 태국 여론, 2021년 저위험국가의 관광객 대상으로 국경 개방에 긍정적 반응

- 2020년 11월 11일~12월 10일까지 시행된 태국 관광위원회(Tourism Council of Thailand, TCT)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현지인 60%와 관광업 관계자 50%는 태국이 저위험국가를 대상으로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특히, 7일~10일간의 단기 여행의 경우, 현지인 39%와 관광업 종사자 50%는 자가격리 기간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데 찬성함
- 태국은 2021년 1분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휴일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신뢰 지수가 53으로 2020년 4분기 보였던 신뢰 지수 62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관광 신뢰 지수 값은 100 이하의 경우, 전년 대비 관광 상황이 악화된 것을 의미하며, 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 전년 대비 관광 상황이 개선된 것을 의미함

■ 인도네시아: 주요 관광지 소규모 호텔 잇달아 폐업

-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호텔들의 폐업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형 호텔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의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Indonesia Hotel and Restaurant Association, IHRA) 욕야카르타(Yogyakarta) 지부는 회원인 400개 호텔 중 100여 개 호텔의 영업 중단, 50여 개의 폐업과 영업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172개로 집계함
-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OLX는 자카르타, 발리, 반둥, 치르본, 파수루안, 욕야카르타 등 주요 관광지에 있는 많은 호텔이 매물을 판매 사이트에 올렸다고 밝힘
- 또한, 발리 호텔협회(Bali Hotels Association, BHA) 부회장인 프란시스카 혼도코(Fransiska Handoko)는 발리의 호텔들 역시 올해 말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지난해 정부의 관광보조금은 호텔이 약 2~3개월간 일시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데만 도움이 되었고 추가적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호소함

나. 미주 지역

■ 미주: 향후 MICE 행사 개최를 위한 이벤트 보험 도입 필요

- 로스앤젤레스의 레이더 프로모션(Radar Promotions) 설립자인 라이언 폴스(Ryan Paules)는 앞으로 MICE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이벤트 보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 앞으로 행사 운영자는 행사 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행사 운영 정책에 포함할 보험 사항과 제외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함
 - 행사 운영진에 의료진과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며, 참석자들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앱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음
- 행사 기획자 및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사 참가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함

■ 미주: 시카고, 무역 박람회 성공리 개최 및 향후 박람회 개최 시 과학 기술 병행 필요

- 2021년 1월,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홈데코, 라이프스타일 무역 박람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며, 향후 전시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줌
- 박람회 관계자는 무역 박람회의 참석자 수가 2020년 여름에 비해 150%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 주문량의 70~80% 증가하는 등 참석자의 지출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조짐을 보였다고 밝힘
 - 무역 박람회에 약 22%는 첫 방문객으로 동북 지역과 중서부, 서부지역 참가자가 200% 이상 증가하는 등 49개 주로부터 많은 방문객이 참여함
 - 참가자 몇몇은 마스크를 쓴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박람회였다고 말함

다. 구미주 지역

■ 영국: MICE 행사 인원 제한 규정 6월까지 점차적으로 완화할 계획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5월 17일부터 일부 MICE 행사에 대해 최대 1,000명 또는 50%의 수용 인원으로 행사를 제한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6월 21일경 대부분의 행사 제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라 밝힘
 - 5월 17일부터 실내 행사는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야외 행사의 경우 최대 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음
 - 경기장 등 야외에 착석할 경우에는 최대 10,000개의 좌석까지 허용됨
- 영국은 4월부터 시범 행사를 통해 적절한 행사 규모와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임
- 반면에, 미팅산업협회(Meetings Industry Association, MIA) 대표인 제인 롱허스트(Jane Longhurst)는 행사장 재개장 계획은 업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긍정적 신호이지만,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힘
- 그는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이면 절반 이상의 관련 비즈니스가 존폐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업계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 지원 보험제도와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함

■ 영국: 영국과 EU간 MICE 행사 참석 관련 새로운 개정안 발표

- 영국 정부는 EU에서 영국으로 전시회와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오는 단기 체류 비즈니스 방문객과 직원들의 입국 제도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함
- 영국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미팅, 행사, 컨퍼런스 등을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은 비자 신청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경제적 보상이 동반되는 활동은 할 수 없음
- EU를 방문하는 영국인은 180일 동안 90일 이내에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에 비즈니스 미팅 참여를 위해 방문할 경우 비자나 워크퍼밋(Work permit)이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함
- 영국과 EU 간에 전시 및 회의를 위한 물품을 운송할 경우, 임시 입장권을 발급받아 이동해야 하며,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는 감면됨
- 해외 연사들이 영국 회의나 컨퍼런스 등에 초빙되어 초청료를 받는 것에 대한 비자 구분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나 워크퍼밋(Work permit)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라. 오세아니아 지역

■ 뉴질랜드: 웰링턴, 2023년 타키나 전시컨퍼런스센터 개관 예정

- 2019년 건립 사업이 시작된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의 타키나 전시컨퍼런스센터 (Takina Exhibition and Conference Centre)는 예정대로 2023년 개관할 예정임
 - 타키나 전시컨퍼런스센터는 총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0,000m² 규모의 초대형 회의실, 2,500m²의 전시공간과 별도 회의 공간, 카페, 갤러리 등 회의시설과 부대 시설 오픈을 준비하고 있음
- 뉴질랜드 관광청 (WellingtonNZ)의 산업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의 55%가 웰링턴에서 개최되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타키나 전시컨퍼런스센터의 오픈이 가까워질수록 MICE 목적지로서의 웰링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뉴질랜드 관광청 총지배인인 데이비드 퍼크스 (David Perks)는 관광청을 통해 타키나 전시컨퍼런스센터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센터는 웰링턴의 예술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 밝힘

■ 호주: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뉴질랜드와의 트레블 버블 일시 중단

- 호주와 뉴질랜드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없이 양국 간의 여행이 가능하도록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 했으나, 2월 13일 호주 오클랜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 3건이 발생하자 뉴질랜드와의 트레블 버블을 일시 중단함
- 2월 14일 오클랜드는 17일까지 3일간 봉쇄 조치를 내려 최대 10인 집합이 가능한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를 폐쇄해 모임을 금지함
- 오클랜드 외 호주의 타 지역도 코로나19 경보를 레벨2로 상향 조정하고, 식당과 카페 등 모임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함

■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 2월부터 33개 행사 개최로 22,000여 명 참석

- 코로나19로 2020년까지 폐쇄되었던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Brisban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BCEC)가 금년 2월부터 새롭게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함
- 2월 첫 2주간 전시회, 컨퍼런스, 기업 오찬, 졸업식 등 33개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총 22,000명이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사 개최를 이어가고 있음
 -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165개의 행사를 개최하여 60,000여명의 참석자 수를 기록함
-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는 2월 행사의 긍정적 추세를 3월 국제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Keno & Clubs Queensland Awards for Excellence 2021, 퀸즈랜드 발레단 창립 60주년 기념행사(Queensland Ballet's 60th Anniversary)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의 총괄 매니저인 밥 오키프(Bob O'Keeffe)는 코로나19 이전 개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2월~3월 행사 개최 건수와 예약 건수를 봤을 때, 이는 MICE 업계의 재개의 초기 단계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3. 국내시장 동향

■ 서울: 전시·컨벤션 업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및 대책 요구 집회

- 2월 26일, 여행업계에 이어 전시 및 컨벤션 관련 8개 협회·단체도 코엑스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 보상 및 대책을 촉구함
 - MICE 업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 조치로 3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고 밝힘
- 업계는 백화점은 방역 2.5단계에서도 입장 통제 없이 영업을 허용했으나, 전시·컨벤션 행사는 16㎡당 1명으로 입장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 기준이 현실성이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함
- 또한, 지난해 전국 16개 전시장에서 열린 288여 건의 전시·박람회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시장, 디자인 설치, 서비스 등 업계 전체가 건물 진입부터 4~5단계에 이르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행사의 정상 개최를 요구함
- 시위에 참여한 협회 및 단체는 정부·지자체 집합금지로 입은 손실 보상, 전시장·회의 시설 방역지침의 개선, 정부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 개최의 정상화, 긴급 자금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한 연장, 전시장 임대료 지원 등 6가지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경기도: 일산 킨텍스, 10월 제8차 CODEX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유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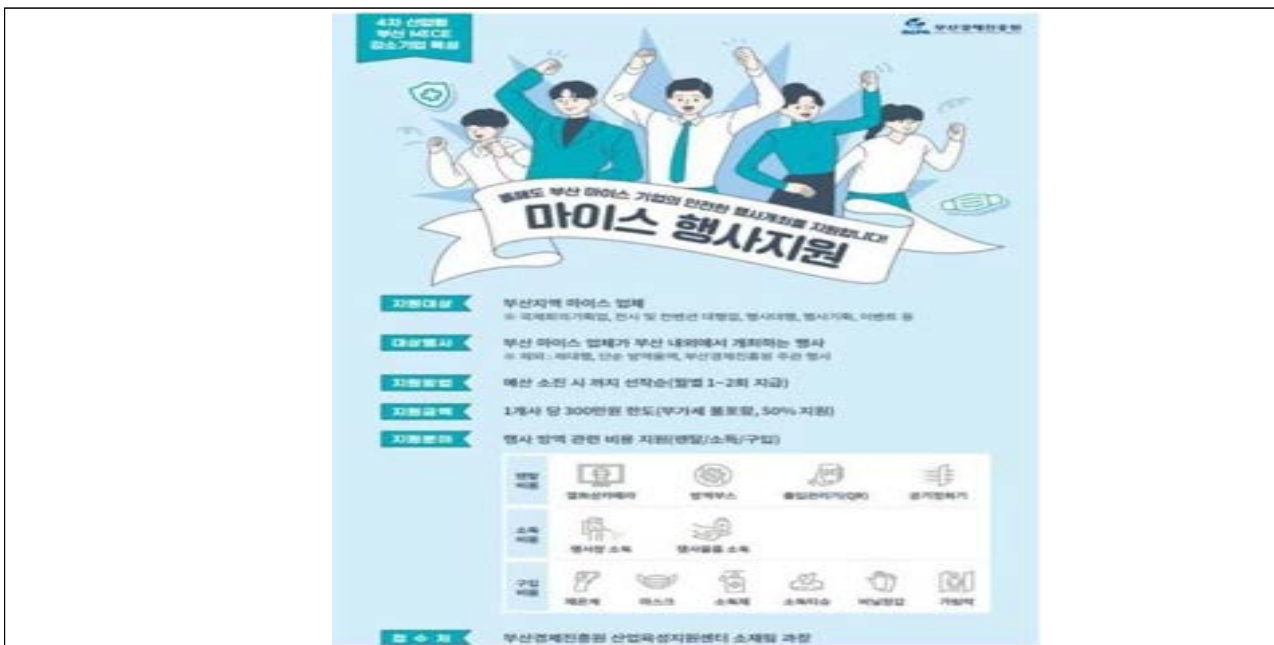
- 2월 9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0월 2일~9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차 CODEX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힘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7개국, 237개 국제기구가 가입돼있는 UN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정부 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한국은 2016년 CODEX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제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하게 됨
- 경기도는 이번 8차 회의에 189개국 및 FAO 등 국제기구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항생제와 관련된 실행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논의 후 결정할 예정임



[그림 7] 2019년 제7회 평창 CODEX

■ 경상도: 부산 벡스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MICE 회복 계획 추진

- 벡스코는 현재 직원들이 1~2주씩 돌아가며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MICE 산업이 점차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순환 유급 휴직을 3월 말까지만 진행하기로 결정함
 - 벡스코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기존에 계획됐던 전시회나 소규모 콘서트 등의 행사 80%를 진행할 계획임
- 벡스코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최대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 행사나 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는 정상 개최가 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비대면 행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2월 18일,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MICE 업계의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MICE 행사 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2020년 부산은 ‘4차 산업형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MICE 업계 방역 지원을 통해 MICE 기업 65개사에 112건의 지원을 함
- 부산시는 부산의 MICE 업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방역 관련 비용으로 1개사 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열화상 카메라, 출입 관리기 등의 렌탈비용, 행사장 및 행사 물품 소독비용, 체온계·소독제·마스크 구입 비용 등이 있음



[그림 8] 부산 MICE 행사지원 안내 포스터

■ 전라도: 여수, 온라인 MICE 유치 설명회 합동 개최

- 2월 25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와 여수마이스협회가 ‘2021년 온라인 MICE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침
 - 본 설명회는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전국의 학·협회, MICE 관계자, 여행업계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함
- 여수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차별화된 해양관광 휴양도시인 여수의 MICE 인프라를 홍보하고, 전국 최대규모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안내했으며,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 기원 영상을 상영하며 글로벌 MICE 도시 여수의 위상을 설명회에 참가한 MICE 관계자들에게 알림
 - 여수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600여 건의 MICE 행사를 유치했으며, 소규모 팸투어를 홍보 및 추진했음



[그림 9] 2021 온라인 MICE 유치 설명회